



노(老)의사가 평생을 바쳐 써 내려간 생명의 시(詩)

'암'이라는 단어가 풍기는 뉘앙스는 두려움을 넘어 공포로 다가온다. 그래서 모든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백혈병도 마찬가지로, 발병한지 4개월 만에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무서운 암이다. 하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완치 가능한 암이 또한 백혈병이다. 그래서 절망적이지만 희망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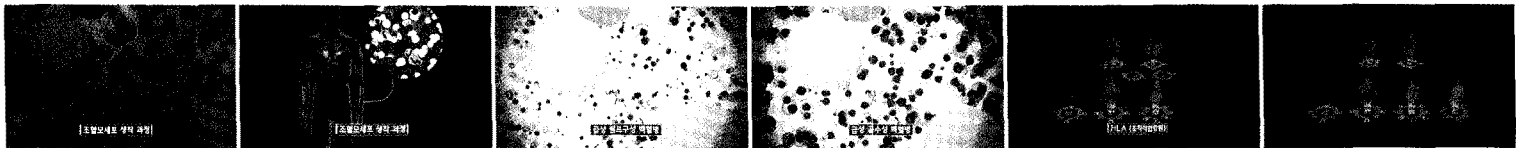
에디터 | 이민우 · 자료제공 | 『명의』(도서출판 '달')

❁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 조혈모세포 탄생기

발병한지 4개월 만에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무서운 암. 위암이나 유방암 같은 고형암과 달리 혈액에 생기는 암, 바로 백혈병이다. 백혈병이 발견되었을 땐 이미 4기 말기에 해당하지만, 사실 병기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 하지만 동시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완치 가능한 암이 백혈병이기도 하다.

조혈모세포는 산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적혈구와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항하는 백혈구,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소판의 모

세포로 분화돼 혈액을 만드는 세포다. 이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백혈병이 되는데,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림프구성 백혈구가 미성숙 상태에서 분열을 계속해 생기는 것으로 소아 백혈병의 주를 이룬다. 반면 골수성 백혈구의 이상 분열로 생기는 '골수성 백혈병'이 주로 성인에게 발병한다. 백혈병 환자의 유일한 치료법은 건강한 공여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것뿐인데, 조혈모세포란 말 그대로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는 뜻이다.



“조혈모세포는 자기가 자식 세포를 만들어 놓고 사라져요. 우리 몸에 돌고 있는 백혈구나 적혈구처럼 중요한 세포들은 피를 만드는 어머니 세포에서 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골수를 공여해 준 사람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항상 어머니가 준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관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비정상 세포를 전부 없애는 것으로서 백혈병으로 치면 2조 여 개의 백혈구를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인체의 방어막인 백혈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작은 먼지 하나, 세균 하나에도 환자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 독한 항암제로 인한 합병증과 감염의 위험. 작은 세균도 침입할 수 없게 철저히 봉인된 무균실은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있는 공간이다.

조혈모세포 이식센터의 코디네이터실에는 공여자를 기다리는 발길이 끊이지 않지만 공여자는 턱없이 적다. 형제간 이식이 불가능

할 경우, 타인에게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등록된 공여자는 10만 명.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환자의 30% 이상이 공여자를 찾지 못하는 현실이다. 한 시간가량 깊은 잠을 자는 동안 공여자의 엉덩이뼈에서 채취하는 조혈모세포의 양은 1,200cc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수술 후 일주일이면 정상시뮬 상태로 돌아가는 정도지만, 작은 비닐 팩에 든 그 붉고도 진한 피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선물이 된다.

● 조혈모세포 이식의 선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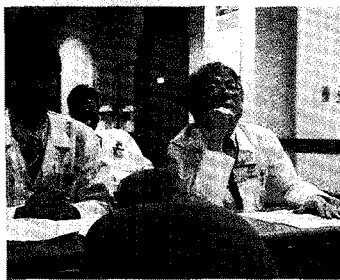
1983년 국내 최초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동종 골수이식 성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조혈모세포 이식 3만 차례 달성. 아시아 최고기록이자 세계 4위의 성과다. 불모지였던 국내의 혈액질환 치료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불치의 병이던 백혈병을 ‘완치 가능

한 암’으로 바꾼 선구자, 그가 바로 기톨릭대학 여의도 성모병원의 김춘추 교수다. 자그마한 키에 성성한 백발의 노(老) 의사 김춘추 교수. 그는 1997년 『요셉병동』을 시작으로 다섯 권의 시집을 낸 시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발병하면 100% 가까이 3개월 내에 사망하던 병이 ‘완치’가 가능한 병이 된 데는 바로 기인과 같은 사람, 김춘추 교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Bone-Marrow Transplantation, 우리말로 번역하면 골수이식인데 사람들이 다 혼동을 하는 거예요.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의사들까지 말이야. 골수라고 하니까 뇌를 이식해준다는 것으로 착각해서, 뇌를 기증하면 기증한 사람 죽는 거 아니냐고, 심지어는 내 동생까지 전화해서 ‘형 뇌이식 수술했다면서, 대단하네?’ 이러는 거야. 그 정도로 인식자체가 척박하고 이해시키기 어렵던 시절이었어요.”

1970년대 백혈병은 걸리면 죽는 병이었다. 백혈병 정복을 목표로 했지만 당시 의학계의 현실은 김춘추 교수의 말 그대로 황무지. 그렇게 시작한 도전. 같은 의사들도 무모한 일이라고 말리기 일쑤였다. 고집을 꺾지 않고 실험을 계속했지만 매번 실패. 골수까지 사무치는 실패를 겪으며 김교수는 마침내 ‘무균실’이란 개념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1983년 국내 최초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골수 이식을 성공했다. 하지만 골수이식이란 개념을 정착시키는 데만 1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수많은 백혈병 환자를 만난 김춘추 교수는 살아난 환자보다 천국으로 떠나보낸 환자를 기억하며 살기로 했다. 후배들에게도 ‘산 환자는 기억하지 말고, 죽은 환자만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절대 똑같은 원인으로 환자를 떠나보내는 일을 만들지 말라’ 고 가르친다. 의사는 세상 모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김춘추 교수의 말이 긴 울림이 되어 남는다. ⑥



우리 삶에 가장 맞닿아 있는 의학과 질병 분야에 대한 깊은 통찰로, 환자와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의사들의 인간적인 면면을 실려볼 수 있는 『명의』(도서출판 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